

전국 평균 아파트값 4억대로 ↓ ...가격 전망지수는 1년래 '최고'

5월 평균 아파트값 4억9650만원...서울 11억8천 매매가격 전망지수, 작년 5월 이후 첫 '90선' 회복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965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4억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5월(4억9468만원) 이후 2년 만이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했다. 5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월(7억2170만원) 대비 791만원 떨어진 7억1379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올해 3월 12억972만원으로 12억원을 유지했지만 4월 11억9944만원으로 떨어진 뒤 5월에도 11억8404만원으로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4

억160만원으로 4억원을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3억9307만원으로 하락했고,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5억3630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이 줄면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85.0) 대비 5.8p 오른 90.8을 기록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9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5월(90.9) 이후 1년 만이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난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전월(83.1) 대비 8.9p 오른 92.0을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하면서 각각 91.4, 95.6을 나타냈다. 집값 변동에 가장 민감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아파트값은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0.1%p 오른 89.0을 기록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

을 나타낸 것으로,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준다. 이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압구정현대,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집값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 지역부터 시작된 반등 신호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부동산R114 백세롬 책임연구원은 "과거 고점 대비 가격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세를 벗어난 상승 전환 범위는 서울이 이끌면서 점차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용일 기자

"싼타페부터 GLC까지"...중형 SUV 판매 경쟁 '점화'

더 커진 신형 싼타페 이르면 3분기 출시 앞둔

패밀리가 수요가 집중되는 중형 SUV 시장 경쟁이 올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차(완전변경 모델) 출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어서다. 기존 인기 모델은 충성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페이스리프트 등의 변화를 통해 판매량을 보전할 계획으로, 중형 SUV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쏘렌토 나와라" 싼타페 출격... 벤츠 GLC 3세대도 나왔다

올해 중형 SUV 시장 신차의 면면은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는 평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싼타페 5세대 모델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 모델은 2018년 4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출시되는 '완전 변경' 모델이다. 싼타페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카'로 2000년 1세대 모델 첫 출시 이래 ▲2005년 2세대 ▲2012년 3세대 ▲2018년 4세대로 진화를 거듭했다. 특히 4세대가 출시된 2018년엔 10만7202대가 팔리며 국내 SUV 최초로 연간 '10만대' 판매기록을 세우며 '베스트셀링카'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신형 싼타페는 전 세대보다 덩치를 키워 돌아온다. 일각에선 신형 싼타페가 한 채급 위인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본다. 디자인은 과거 겔트로의 각진 디자인을 계승해 정통 SUV의 레트로그 감성을 더한다. 파워트레인(자동차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을 통칭)에도 변화를 준다. 업계에 따르면 싼타페 5세대는 디젤을 빼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만 라인업을 구성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는 최근 럭셔리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의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

신형 GLC는 3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지난해 5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다. 차체는 전장 4720mm, 전폭 1890mm, 전고 1645mm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 모델보다 70ℓ 늘었으며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620ℓ까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는 더 뉴 GLC 220 4MATIC과 더 뉴 GLC 300 4MATIC이 우선 출시된다. 두 차량 모두 4기통 디젤과 48V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GLC 200d 4매틱은 최고 출력 197마력, 최대토크 440Nm의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8.0초가 걸린다. GLC 300 4매틱의 경우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0Nm, 제로백 6.2초의 성능을 낸다. 신형 GLC 판매 가격은 ▲GLC 220d 4매틱 7570만원 ▲GLC 300 4매틱이 8580만원이다.

◆기아 쏘렌토부터 BMW 'X 시리즈'까지...견제할 스타디올라

다만 중형 SUV 시장에서 '스타디올라'로 입지를 확고히 한 기존 인기 모델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에 자리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해 중형 SUV 1위를 넘어 국내 승용차 1위 자리에 올랐던 기아 쏘렌토는 여전히 높



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기아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쏘렌토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21.3% 증가한 6499대를 팔았다. 올해 누적 판매 대수도 전년보다 13.0% 증가한 2만9580대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싼타페 판매량(1만3208대)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쏘렌토 페이스리프트(자동차의 외관이 일부 바뀌고, 옵션이 추가돼 기존 모델보다 디자인이나 성능이 개선되는 것)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인기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동급 대비 큰 실내 공간과 뛰어난 디자인,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의 존재 등이 쏘렌토 인기 비결이다. 이외에 BMW가 자랑하는 SUV 라인업인 'X 시리즈'도 중형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MW X3와 X4는 올해 각각 2708대, 2716대 판매되며 수입 베스트셀링카 상위 10개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 국내서 X4보다 많이 팔린 수입차 모델은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6 ▲렉서스 ES 5계 뿐으로, SUV 중에선 X4가 가장 많이 팔렸다. 이슬비 기자



삼성,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 출시

삼성전자가 실외기 1대로 에어컨을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홈 멀티 에어컨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Fit Home)'을 12일 출시했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은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으로 구성된 기존의 홈 멀티 에어컨에 천장형 에어컨까지 추가한 신개념 홈 멀티 제품이다. 2대 패키지는 스탠드형 1대, 천장형 1대, 실외기 1대로 구성되며 3대 패키지는 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1대, 천장형 1대, 실외기 1대 또는 스탠드형 1대, 천장형 2대, 실외기 1대로 구성된다. 천장 안쪽 공간이 부족해 기존에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어려웠던 곳에도 단내립 키트를 통해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실과 안방 등에 매립배관이 있으면 시공 범위를 줄일 수 있어 에어컨을 보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에어컨 3대를 모두 '무풍모드'로 운전하면 '강력

냉방' 대비 소비전력을 최대 72%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서 제공하는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과냉방이 감지될 때 약제 알고리즘이 적용돼 소비전력을 자동으로 최대 20%까지 아껴준다. 이밖에 내부 청소가 어려운 에어컨을 기기가 스스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셀프 세척이 가능한 '이지케어' 기능, 초미세먼지는 물론 공기 중 유해세균을 제거해주는 '안심청정' 기능 등 무풍에어컨의 장점은 모두 갖췄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은 내추럴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되며, 냉방 면적은 각각 스탠드형 에어컨 62.6㎡, 벽걸이 에어컨 18.7㎡, 천장형 에어컨 18.7㎡이다. 출고가는 타입과 조합에 따라 630만~754만원이며,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준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광량냉방'에 대한 수요와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선호 증가 추세에 맞춰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핏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경동나비엔 '키친플러스' 신제품 출시



경동나비엔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키친플러스(키친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키친플러스는 3D 에어후드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주방에서 발생하는 요리매연 등 유해물질의 실내 확산을 막고 실내공기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쿡탑에서 요리가 시작되면 3D 에어후드가 이를 감지해 세방향에서 에어커튼을 형성하고 조리 화력에 따라 3D 에어후드의 풍량이 자동으로 조절됨으로써 요리매연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조리대를 벗어나 거실 등의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3D 에어후드와 연동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이 4단계 청정 필터시스템을 거친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한다. 3D 에어후드는 일반 후드 대비 더 낮은 풍량과 소음으로 초미세먼지를 '보통' 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최대 풍량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 뉴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36만명 ↑ ...외국인 영항 제외 '둔화' 계속

고용부, 올해 5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 발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6만명 넘게 늘어 증가폭을 다시 확대했다. 그러나 이중 3분의 1 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영향으로, 내국인의 고용 둔화세는 지속됐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6000명(2.5%) 증가했다. 지난 4월 35만7000명 증가에 그치며 그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이내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만2000명), 보건복지(10만1000명), 숙박음식(5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8000명), 정보통신(3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C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

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확대돼왔다. 202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0인~30인 미만,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은 1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명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6만6000명) 중 외국인(12만명)을 제외하면 24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내국인 등 고용보험 가입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52만1000명까지 늘었다가 점차 감소하며 올해 1월 26만7000명→2월 27만9000명→3월 27만1000명→4월 24만3000명→5월 24만6000명으로 축소됐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11만2000명) 중 외국인은 10만

5000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은 7000명에 불과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계속 유지하거나 소폭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관하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2만3000명), 50대(9만4000명),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2만6000명 줄며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637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88억원(4.8%) 늘어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1조 3000억원에서 4월 9617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뒤 다시 확대됐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최이슬 기자